

낭만의 세계: Fluid Realms 2026. 09. 02 - 10. 03

낮과 밤 사이,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은 시간이 있다. 빛과 그림자의 경계는 흐릿해지고, 시간의 감각마저 평소와 달라지며, 우리를 감싸는 공간은 상상을 위한 무대가 된다. 《낭만의 세계》는 이 경계의 상태, 깨어 있음과 꿈 사이, 해질녘과 동틀 무렵 사이에서 깨어나는 감각을 통해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환기한다.

스튜디오 노케 (Studio Noké)는 서문섭과 카타리나 숙 윌팅 (Katharina Sook Wilting)으로 구성된 네덜란드 기반의 디자인 듀오다. 두 사람은 빛과 물, 움직임과 반사와 같은 물리적 현상을 활용한 공간 설치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탐구한다. 이들의 작업은 자연을 재현하기보다는 그 본질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한다. 작품을 바라보는 관객은 전시 공간에서 속도를 늦추고 현상을 관찰하며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

이번 《낭만의 세계》에서 선보이는 스튜디오 노케의 작업은 경이롭고 시적인 감각, 그리고 원초적인 경험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 〈Shape of Water〉는 빛이 물과 만나 만들어지는 무늬와 결의 끊임없는 변화를 드러낸다. 물의 움직임은 빛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이 모든 변화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을 잡아끈다. 본래 물의 성소(聖所)로 제작된 이 작품은 물을 단순한 자원 이상의 고유한 존재감과 깊은 은유를 지닌 대상으로 바라보게 한다. 〈Drifting Clouds〉의 움직임은 조용히 시선을 이끈다. 파도의 물리적 특성과 샤이브 웨이브 모델(Shive Wave Machine)에서 영감을 얻은 이 키네틱 조각은 공간 안에서 느리지만 꾸준한 파동을 만들어낸다. 조각의 표면에 반사되는 빛은 조각의 움직임과 관객의 시점에 따라 주변 풍경을 바꾸며 어떤 고정된 형태로도 머무르지 않는다. 구름이나 물결을 가만히 지켜보듯, 관객은 목적지에 얽매이지 않고 일렁이는 조각에 시선을 맡긴다. 〈Passage to the Lake〉는 물가에 서 있을 때 마음에 평온이 깃드는 경험에서 출발한다.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는 물방울의 여운은 관객을 일상의 속도에서 잠시 벗어나게 한다. 여기서 물은 곧 시간의 흐름이 되며, 반복되는 물방울의 움직임을 바라보다 보면 어느새 마음도 함께 유영한다.

전시장 속에서 이들과 함께할 때 우리의 감각은 더욱더 느리고 섬세해진다. 빛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변화한다. 계속해서 반사되고, 형태는 흐려지며, 관객의 움직임과 함께 작품과 주변의 경계는 점차 희미해진다. 이번 전시에서 ‘낭만’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감성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의미한다. 열린 마음과 호기심, 그리고 평범한 것에도 특별함이 깃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포용하는 시선을 말이다. 그리고 이 세계에서 새벽과 황혼은 서로의 경계에 놓인 시간이다. 세상이 어떤 한 가지 상태로만 정의할 수 없는 중첩되고 모호한 순간들이기 때문이다.

《낭만의 세계》는 우리에게 이 중간의 상태에 잠시 머물러 보라고 말한다. 잠시 앉아서, 이곳이 바라보고, 마음이 흘러가도록. 마치 잠들기 직전 혹은 방금 잠에서 깨어난 순간처럼, 현실이 조금은 몽환적이고 아직 꿈을 꿀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그 순간에 말이다.

작가 소개

@studio.noke
@moonseopseo
@balmingkatti



스튜디오 노케(Studio Noké)는 서문섭과 카타리나 숙 윌팅(Katharina Sook Wilting)이 2022년 네덜란드에서 함께 설립한 디자인 스튜디오다.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서는 밀라노를 대표하는 컬렉터블 디자인 갤러리 로자나 올란디(Rossana Orlandi)를 통해 해마다 작품을 선보이는 등 국제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빛과 물, 반사와 움직임 같은 물리적 현상으로 자연의 순간적인 장면을 공간 속 시적인 풍경으로 담아낸다.

서문섭은 2021년 아인트호벤 디자인 아카데미를 최우등(Cum Laude)으로 졸업하고 곧바로 자신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으며, 이후 여러 디자인 뮤지엄·갤러리와 협업해왔다.

“제 작품이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일상 속에서 감탄의 순간을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한국인으로서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지점에서, 문화와 철학, 미학이 부딪히고 교차하는 순간을 끊임없이 경험하며 탐구하고 있다.

카타리나 숙 윌팅은 공간과 무대, 설치를 주요 매체로 삼는 다학제적 디자이너다. 이런 매체로 고정된 관점에 질문을 던지고 태도의 변화를 끌어내며, 관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끄는 작업을 한다. 한국과 독일이라는 두 문화적 배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문화적 유산과 동서양 철학이 부딪히는 지점, 그리고 에코페미니즘적 주제에서 영감을 얻는다. 모든 작업에서 협업을 중요하게 여기며, 비슷한 가치와 지향점을 가진 이들과 함께 다양하고 집단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CV

서문섭

학력

2021 아인트호벤 디자인 아카데미, 네덜란드
B.A. 디자인 학사(쿤 라우데)

경력

2020 아리타, 인턴십, 일본 아리타

카타리나 숙 윙팅

학력

2022 샌드버그 인스티튜트, 네덜란드
M.A. 디자인

2018 쾰른 국제 디자인 학교, 독일
B.A. 통합 디자인

경력

2019 Doris in the Jewelry, 디자인 워크샵, 독일 쾰른
2014 Opera and Theater Bonn Stagedesign, 인턴십,
독일 본

스튜디오 노케 주요 전시 및 예술 활동

개인전

2026 <낭만의 세계: Fluid Realms>, 워크스웍스, 서울

단체전

2026 <Drifting Clouds>, THE AIR HOUSE 뮤직 페스티벌, 남이섬

2025 더치 디자인 위크, 반 아베 하우스,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Schermerlicht Festival, 달순, 네덜란드 나이메헨
밀라노 디자인 위크, 알코바 빌라 바가티, 이탈리아 밀라노

2024 더치 디자인 위크, 섹티C,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Drifting Clouds>, Draaimolen Festival, 네덜란드 틸버그
밀라노 디자인 위크, 갤러리 로자나 올란디, 이탈리아 밀란

2023 <Shape of Water>, 카제르네,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Healing Water>, Z33, 벨기에 하셀트
<Exhibition Expedition Aequalis>, 더치 인버쥬얼,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WORKS WORKS

서울 강남구 학동로56길 43 지층
@worksworks.seoul



WORKS WORKS는 작업 과정과 그 결과물이 서로 이어지며 새로운 지점을 만들어내는 ‘흐름’에 중심을 두려 합니다. 작업(work)이 작품(works)으로 확장되고, 작품이 다시 또 다른 작업과 감각을 불러오는 구조 속에서 워크스웍스는 그 흐름이 만들어내는 여러 지점을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동시대 국내외 젊은 작가들의 전시를 기반으로 다양한 협업과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며, 작업이 새로운 지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관객에게 심미적 아름다움과 지적인 자극을 제공하며 예술을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탐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CONTACT

Director / HYOUNGSUB JUNG
+82 10 8986 1107

worksworks.seoul@gmail.com